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나 역시 누가 듣지나 않는가 하고 아까부터 수상쩍게 보이던 저편 뒤로 킁킁한 구석에 금테를 한 동 두른 모자를 쓴 채 외투를 뒤집어쓰고 누웠는 일본 사람과, ㉠ 김천서 나하고 같이 오른 양복쟁이 편을 돌려다보았다.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총독정치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 그 중에서 무슨 오해가 생길지 그것이 나에게 는 염려되는 것이었다.

"㉢ 정말 내지에도 공동 묘지가 있어요? 하지만 행세하는 사람야 좀 다르겠죠?"

"그야 좀 다르겠지만 어떻게 일본에서는 주로 화장을 지내기 때문에 타고 남은 ㉣ 아마 목구멍 뼈라든가를 갖다가 묻고 목패든지 비석을 세운다우 그리지 않아도 살아 있는 사람은 터전이 좁아서 땅 조각이 금 조각 같은데, 죽는 사람마다 넓은 터전을 차지 하다가는 이 세상에는 무덤만 남고 말지 않겠소. 허허허." / 나는 이러한 소리를 하면서도, 묘지를 간략하게 하여 지면을 축소하고 ㉤ 남은 땅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고 마누 하는 생각을 하여 보았다.

"그리구서니 자기의 부모나 처자를 죽었다구 금세루 살라야 버릴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대대로 내려오는 제 집 산소까지를"

이 사람은 나의 말이 옳다는 모양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도 그래도 반대를 한다.

"화장을 지낸대기루 상관이 뭐겠소. 예전에 애급이라는 나라에서는 왕후 장상의 시체는 방부제를 쓰고, 나무판에 넣은 시체를 다시 석관까지에 튼튼히 넣어서 피라미드라는 큰 굴 속에 묻어 두었지만, 지금 와서는 미라밖에는 되지 않고 만 것을 보면 죽은 송장에서 능라 주의 를 입히고, 백 평 천 평 되는 땅에다가 아무리 굳게 파 묻기로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요. 동상을 세우면 무얼 하고 송덕비를 세우면 무엇에 쓴다는 말이요" / 내 앞에 앉았는 장꾼은 무슨 소리인지 귀에 자세히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네, 그런 것이 있어요?" / 하고 멀거니 앉았다.

"하여간 부모를 생사 장제(生事葬祭)에 예(禮)로써 받 들어야 할 거야 더 말할 것 없지마는, 예로 하라는 것은 결국에 공경하는 마음이나 정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소? 그러니 공동 묘지법이란 난 아직 내용도 모르지마는, 그것은 별문제로 치고라도, 그 근본 정신은 생각지 않고 부모나 선조의 산소치레를 해서 외화(外華)나 자랑 하고 음덕(蔭德)이나 바란다는 것도 무슨 수작이란 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니겠소. 지금 우리는 공동 묘지 때문에

못 살게 되었소? 염통 밑에 쉬 스는 줄은 모른다구, 깎살릴 것 다 깎살리고 뺏속에서 쪼르르 소리가 나도 죽은 뒤에 파묻힐 곳부터 염려를 하고 앉았을 때인지, 너 무도 얼빠진 늣동이 수작이 아니요? 허허허."

[중략]

나는 하도 심심하기에 모자를 집어 쓰고 차에서 내려서 플랫폼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갔다. 그 동안에 눈이 서너 치나 쌓인 모양이다. 지금은 뜬하나 뼈에 저린 밤 바람이 모가지를 자라목처럼 오그라뜨리었다. 맨 끝에 달린 찻간 앞까지 오니까 불을 환하게 켜 차장실 속에 얼굴이 해고무레한 두 청년이 검정 방한모(防寒帽)에 소매통이 좁은 옥색 두루마기를 입고, 누런 양복을 입은 헌병(憲兵)과 마주 서서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환히 보이었다. 얼굴 모습이 같은 것을 보면 두 청년은 형제 같고, 헌병 가슴에 권총을 단 줄이 늘어진 것을 보면 보조원이 아니요 이것이 분명하다. 나는 창 밑으로 가까이 가 보니까 세 사람은 여전히 웃으며 무어라고 속살거린다. 그러나 그 청년들의 어설피게 웃는 낫빛과 입술이 경련적(痙攣的)으로 위로 뒤틀린 것은 공포 그것 같았다.

'스파이는 아니군!'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나는 발길을 돌이켜 목책으로 막은 입구 앞으로 가서 내 손으로 열고 나갔다. 아무도 막지 않고 좌우편으로 눈발이 쳐들어오는 횡행그렁한 속에는 한가운데에 난로랍시고 놓고 그 가에 옹기옹기 사람들이 모여 섰다.

'대합실도 없이 이런 벌판에 세워 둘 지경이면 어서 찻간으로 들여보낼 일이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난로 옆을 흘끗 보려니까 결박을 지은 범인이 댓 사람이나 오르르 떨며 나무 의자에 걸터앉고, 그 옆에는 순사가 셋이서 지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무심코 외면을 하였다. 그 중에는 머리를 파발을 하고 땃덩이가 된 치마저고리의 매무시까지 흘러 내린 젊은 여편네도 역시 포승(捕繩)을 지어서 앉아 있다. 부끄럽지도 않은지 나를 부러워하는 듯한 눈으로 물끄러미 치어다보다가 고개를 숙인다. 자세히 보니 등 뒤에는 싹싹 자는 아이가 매달렸다. 여자의 이런 꼴을 처음 보는 나는 가슴이 선뜩하며 멀거니 얼이 빠져 섰었다. 나는 흉악한 꿈을 꾸며 가위에 눌린 것 같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한참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렸

다.

정거장 문 밖으로 나서서 눈을 바삭바삭 밟으며 큰 길 거리로 나가니까 칠 년 전에 일본으로 달아날 제, 오정 때 대전에 내려서 점심을 사 먹던 그 집이 어디인지 방 면도 알 수 없이 시가(市街)가 변하였다. 길 맞은편으로 쪽 늘어선 것은 빈지를 들었으나 모두가 신축한 일본 사람 상점이다. 우동을 파는 구루마가 찻터터터 흥드는 요령소리만이 괴괴한 거리에 처량하다. 열네다섯째에 말도 모르고 단신 일본으로 공부 간다는 데에 호기심이 있었던지 친절히 대접을 해 주던, 그 때의 그 주막집 주인 내외가 그렇다.

다시 돌려 들어오며 보니, 찻간에서 무슨 대수색을 하는지 승객들은 아직도 아니 들여보내고, 결박을 지은 여자는업은 아이가 깨어서 보채니까 일어서서 서성거린다.

‘젓이나 먹이라고 좀 풀어 줄 일이지.’

하는 생각을 하니 곁에 시퍼렇게 얼어서 앉은 순사가 불쌍하다가도 입살맞다. 목책 안으로 들어오며 건너다 보니까 차장실 속에 있던 두 청년과 헌병도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는 까닭 없이 처량한 생각이 가슴에 복받쳐 오르면서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공기에 몸이 떨린다.

젊은 사람들의 얼굴까지 시든 배춧잎 같고 주눅이 들어서 멀거니 앉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빌붙는 듯한 천한 웃음이나 ‘해에’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면 가 없기도 하고, 분이 치밀어 올라와서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다.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뉘져 버려라!’

찻간 안으로 들어오며 나는 혼자 속으로 외쳤다.

‘㉞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나는 모자를 벗어서 앉았던 자리 위에 던지고 난로 앞으로 가서 몸을 녹이며 섰었다. 난로는 꽤 달았다. 뱀의 혀 같은 빨간 불길이 난로 문 틈으로 날름날름 내다보인다. 찻간 안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석탄재의 먼지로 흐릿하면서도 쌀쌀하다. 우중충한 남뿔불은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같으나 묵직하고도 고요한 압력(壓力)으로 지그시 내리누르는 것 같다.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순행적 구성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② 상징적 배경을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서술자가 관찰한 사실과 그에 대한 심리가 제시되고 있다.
- ④ 인물의 성격 변화 양상을 통해 긴장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고백체 형식의 과거 회상을 통해 인물의 내면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2. 윗글에서 <보기>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은?

— <보 기> —

‘만세전’은 배와 기차를 이용하여 동경에서 서울로 왔다가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여로형 소설이다. 이동 과정에서 알게 된 일로 주인공은 많은 고뇌와 깨달음을 얻는다.

- ① ‘나’가 민족의 문제로 인해 저항을 결심하게 된다.
- ② ‘나’가 일본인의 시각에서 조선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 ③ ‘나’가 일본이 들어온 근대 문명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 ④ ‘나’가 ‘장꾼’을 통해 조선인들의 사고방식을 알게 된다.
- ⑤ ‘나’가 자아 각성보다 사회 개혁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일자리에 대하여 아무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이 외에도 좋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나는 은근하게 물었다.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흥, 고향에서 오누마."

하고 그는 휘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그의 신세타령의 실마리는 풀려 나왔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한 백 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삿집 땅을 붙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가 동양척식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를 바치거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오려면 소위 중간 소작인이란 것이 생겨나서 저 손에 흙 한 번 만져 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 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에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굶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삼 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종이 염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여대하고 타 처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갔다.

지금으로부터 구 년 전 그가 열일곱 살 되던 해 봄에 (그의 나이는 실상 스물여섯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쫓겨 가는 운명이거든 어디를 간들 신신하라. 그곳의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려질 리 없었다.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간 이가 모조리 차지를 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나 그곳 당도

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무슨 행세로 적어도 일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어 가며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남의 밭전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주먹뿐이었다. 이태 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티어 갈 제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열아홉 살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 가는 중 사 년이 못 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중략]

화도 나고 고국 산천이 그림기도 하여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벌이를 구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한다.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뭐시오, 고향이 통 없어졌더마."

"그렇겠지요. 구 년 동안이면 펍 변했겠지요."

"변하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앓더마."

"그러면 아주 폐농이 되었던 말씀이오."

"흥, 그렇구마. 무너지다가 담만 준비하게 남았즈마.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겠는기오."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씩어 넘어진 서까래, 뭉뭉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혈어 젖혀 놓은 것 같더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기오? 백여 호 살던 동리가 십 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기오, 후!"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 준 술을 꿀꺽 들이켜고,

"참! 가슴이 터지드마,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뒤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 조선의 얼굴을 뚝뚝히 본 듯싶었다.

이윽고 나는 이런 말을 물었다.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하나 만났구마, 단지 하나."

"친척 되시는 분이던가요."

"아니구마, 한이웃에 살던 사람이구마."

하고 그의 얼굴은 더욱 침울해진다.

"여간 반갑지 않으셨겠지요."

"반갑다마다, 죽은 사람을 만난 것 같더마. 더구나 그 사람은 나와 까닭도 좀 있던 사람인데……."

"까닭이라니?"

"나와 혼인말이 있던 여자구마."

"하—!"

나는 놀란 듯이 벌린 입이 닫혀지지 않았다.

"그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하구마."

하고 그는 또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 두 살 위였는데 한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자라났었다. 그가 열네 살 적부터 그들 부모 사이에 혼인말이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하였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열일곱 살 된 겨울에 별안간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아버지는 자가 이십 원을 받고 대구 유곽에 팔아먹은 것이었다.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처녀 가족은 그 동리에서 못 살고 멀리 이사를 갔는데 그 후로는 물론 피차에 한 번 만나 보지도 못하였다. 이번에는 빈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그 아내 될 뻔한 댁과 마주치게 되었다. 처녀는 어떤 일본 사람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다. 쫄녀는 이십 원 몸값을 십 년을 두고 갚았건만 그래도 주인에게 빚이 육십 원이나 남았었는데 몸에 몸쓸 병이 들고 나이 늙어져서 산송장이 되니까 주인 되는 자가 특별히 빚을 탕감해 주고 작년 가을에야 놓아 준 것이었다. 쫄녀도 자기와 같이 십 년 동안이나 그리던 고향에 찾아오니까 거기에는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쓸쓸한 돌무더기만 눈물을 자아낼 뿐이었다. 하루 해를 울어 보내고 읍내로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십 년 동안에 한 마디 두 마디 배워 두었던 일본 말 덕택으로 그 일본 집에 있게 되었던 것이었다.

"암만 사람이 변하기로 어째 그렇게도 변하는기오? 그 술 많던 머리가 훌렁 다 벗어졌더마. 눈은 꼭 들어가고 그 이들이들하던 얼굴빛도 마치 유산을 끼얹은 듯 하더마."

"서로 붙잡고 많이 우셨겠지요."

"눈물도 안 나오드마. 일본 우동집에 들어가서 돌이서 정종만 열 병 따라 뉘고 헤어졌구마."

하고 가슴을 짜는 듯이 괴로운 한숨을 쉬더니만 그는 지낸 슬픔을 새록새록이 자아내어 마음을 새기기에 지쳤음이다.

"이야기를 다 하면 무얼 하는기오."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내 또한 너무도 참혹한 사람살이를 듣기에 쓴물이 났다.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하고 ㉡ 우리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되 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그는 취흥에 겨워서 우리가 어릴 때 멋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읊조렸다.

벗섬이나 나는 전토는
신작로가 되고요—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A] 감옥소로 가고요—
 담뱃대나 떠는 노인은
 공동묘지 가고요—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유곽으로 가고요—

3.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만 묶인 것은?

- ㄱ. 작중 화자가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 ㄴ. 당대 현실의 비참한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 ㄷ. 억압적인 현실에 저항하는 전형적인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
- ㄹ. 내적 독백을 연속적으로 서술하여 소설 내의 시간을 느리게 진행시키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4.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묘사를 통해 당대 현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 ③ 역사적인 사실과 결부하여 사실성을 더하고 있다.
- ④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⑤ 주된 갈등이 과거의 체험담으로 간접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글이글 달아 있는 폭양 아래 난데없는 홍수 소리다. 물벌레, 고기 새끼가 죄다 말라져 죽고, 땅거미가 줄을 치고, 개미 떼가 장을 벌였던 붓도랑에, 둔덕이 넘게 벌건 황토 물이 우렁차게 쏟아져 내린다. 빨강계타쳐 죽은 곡식이야 인제 와서 물인들 알라 마는, 그래도 타다 남은 벼와 시든 두렁 콩들은 물소리만 들어도 생기를 얻은 듯이 우줄 우줄 춤을 추는 것 같다. 행길 양옆을 흘러가는 붓도랑 가에는 흰 옷, 누른 옷, 혹은 검정 치마가 미친 듯이 부산하게] 떠들며 오르내린다.
 수도 저수지(貯水池)의 물을 터놓은 것이다. 성동리 농민들이 밤낮 없이 떼를 지어 몰려가서 애원에, 탄원에 두 손발이 닳도록 빌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나중에는 밤중에 수원지 울안에까지 들어가서 물을 달리 돌려내려고 했기 때문에, T시 수도 출장소에서조차 작년처럼 또

폭동이나 일어날까 두려워서, 저수지 소제도 할 겸 제이(第二) 저수지의 물을 터놓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고까짓 저수지의 물로써 넓은 들을 구한다는 건 되지도 않는 말이고,--물을 보게 된 것이 차라리 없을 때보다 더한층 시끄럽고, 싸움만 벌어질 판이다.
 들깨는 논이 보 꼬리에 달렸기 때문에 몇 번이나 저수지 물구멍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붓머리까지 가서 물을 조금 달아 가지고 오면, 도중에서 이리저리 다 떼이고 자기 논까지는 잘 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수삼차 오르내리고 보니, 꼭 눌러 오던 화가 그만 불끈 치밀었다.
 "여보, 노장님!"
 들깨는 오던 걸음을 되돌려서, 소리를 치며 비탈길을 더우잡았다.
 "제에기, 논을 떼었으면 떼었지, 인젠 할 수 없다!" 그는 급기야 이를 악물었다. 어느 앞이라고, 만약 한 번이라도 점잖은 종에게 선불리 반항을 했다가는 두말없이 절 논이라고는 똑딱 떼이고 마는 것이다.
 노승은 들은 체 만 체, 들깨가 가까이 가도 양산을 받은 그대로 물을 가로막고 있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요. 밑엿 사람은 굶어 죽어도 종단 말이요?" 들깨는 커다란 사벨로써 노승의 장난감 같은 삽가래를 뗏장과 함께 찍어 당겼다.
 물은 다시 썩-- 하고 밑으로 흘러내린다.
 "이 사람이 버릇없이 왜 이럴까?"
 ㉠ 노승은 짐짓 점잖은 체하고 나무라면서도, 눈에는 시뻘하는 빛과 독기가 얼씬거린다.
 "살고 봐야 버릇도 있겠지요."
 ㉡ "아하, 이 사람이 아주 환장을 했군. 아서라 그렇게 하는 법이 아니다." 노승은 다시 물을 막으려고 들었다.
 "천만에요! 우리도 살아야겠어요. 물을 좀 가릅시다. 노장님까지 이래서야……" 들깨는 제 손으로 갈랐다. 그리고 몇 걸음 못 가서, 또 어떤 논 귀퉁이에서 조그마한 애새끼 한 놈이 썩 나오더니 물을 가로막고는 언덕 밑으로 숨어 버린다.
 "예끼, 쥐새끼 같은 놈!"
 들깨는 골 안이 울리도록 고향을 내지르며 쫓아가서, 그 놈의 물꼬에다 아름이 넘는 돌을 하나 밀어다 붙여었다.
 길 저편에서도 싸움이 벌어졌다.---갈갈이 낡아 미어진 헌옷에, 허리 짬만 남은--- 남방 토인들의 나무 꺾대기

치마 같은 몽당치마를 걸친 가동 할멈이 붓도랑 한복판에 펴져 앉아서 목을 놓고 울어댄다.

"에구 날 죽여 놓고 물 다 가져가요."

"이 망할 놈의 늙은이, 남이 일껏 끌고 온 물만 대고 앉았네. 어디 아가리만 벌리고 앉았지 말구 너도 한 번 물이나 끌고 와 봐!"

경찰관 주재소의 고자쟁이로 알려져 있는 이 시봉이란 젊은 놈의 깡이는 더떨머리를 풀어헤치고 악을 쓰는 늙은 과부 할멈의 허벅살에 시퍼런 멍을 남겨 놓고 갔다.

들개는 보릿대 모자를 부채 삼아 내 흔들면서, 쥐꼬리만한 물을 달고 내려가다가, 철한이란 놈하고 봉구란 놈이 아주 논 가운데서, 곰처럼 별로 말도 없이 이리 밀치락 저리 밀치락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말려 볼 생각도 않고 제 논으로만 갔다. 그의 논으로 뚫린 물꼬는 으레 또 짝 봉해 져 있었다.

"어느 놈이 이렇게 지독하게……"

막힌 물꼬를 냉큼 터놓고서, 막 논두덕 위에 올라서자니까, 자기 논 아래로 슬그머니 피해 가는 오촌 아저씨가 보인다. 아저씨도 환장이 되었구나 싶었다. 새벽부터 나돌며 날뛰어도 반 마지기도 채 적시지 못한 것을 돌아보고는 들개는 그만 낙심이 되어서 논두덕 위에 털썩 주저앉았으나, 그 쥐꼬리만한 물줄기가 끊어지자 그는 다시금 그곳을 떠났다.

철한이와 봉구란 놈은 아직도 싸우고 있었다.

"이,이, 이놈의 자식이 사람을 아주 낮보고서."

봉구란 놈이 번니를 내 물고서 악을 쓴다.

"글썸, 정말 이걸 못 놓겠니?"

철한이란 놈이 아무리 제비 손을 넣으려고 애를 써도, 워낙 떡심 센 놈이 돼서 봉구는 달짝도 않고, 되려 철한이란 놈의 턱밑을 쥐고 자꾸 밀기만 했다.

그러던 놈들이, 들개가 한번 소리를 치자, 서로 잡았던 손을 흐지부지 놓고서 논두덕 위로 올라 왔다.

"예끼 싱거운 녀석들! 물도 없애 놓고 무슨 물싸움들이야! 분풀이할 곳이 그렇게도 없던가 온!"

들개의 이 말에, 그들은 쥐꼬리만한 붓물조차 끊어지고 만 빈 도랑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중략]

마침내 군청에서 주사 나리까지 출장을 나와서, 소위 가뭄으로 인한 피해 상태의 실지조사를 하고 가더니,

달포가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고, 동네 안에는 다만 주림과 불안만이 떠돌 뿐이었다.

그래도 보광사에서는 갑자기 간평(看坪)을 나왔다. 고자쟁이 이 시봉과 본사 법무원(法務院)에서 셋---도합 네 사람이 나왔다.

간평! 소작료! 농민들에게는 이 말이 무엇보다도 무섭고 또 분했다. 그러나 그날 절논 소작인으로서는 물론 하나도 출타를 앓고 기다렸다. 농사 조합의 평의원이 되어 있는 진수도 그날은 면소 일을 제쳐놓고 중들을 맞이하였다.

그래서, 진수의 집 사랑에서는 일찍부터 술상이 벌어졌다. 미리 마련해 두었던 밀주와 술안주가 이내 모자랐든지, 머슴 놈이 보광리 상점으로 종종걸음을 치고 쇠고기 굽는 냄새가 흐뭇이 새어 나오는 통에, 대문밖에 죄인처럼 주그러뜨리고 앉은 소작인들은, 괜히 헛침만 꿀떡꿀떡 삼키었다.

작인들은 간평원들의 미움이나 받을까 저어했음인지 차례로 안으로, 들어가서는 오시느라고 수고했다고 공손히 수인사를 하고 나왔다. 고서방은 지난 여름 당한 일을 생각하면 이가 절로 갈렸지만 그래도 시봉의 앞머리를 꿇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에헴, 에헴, 에---헴!"

치삼노인도, 듣는 사람의 가슴까지 걸릴 기침 소리를 연거푸 뱉으면서 기다란 지팡이를 끌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자식 같은 사람들 앞에 절을 하고서는, 그러지 말라던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서, 그제 자기 집 농사 사정을 여쭙어 보려고 했다.

"여보 노인, 그런 소리는 할 필요 없소. 메밀을 갈았으면 메밀을 간 세만 내면 되지 않겠소?" 이시봉은 거만스런 반말로써 사정없이 쏘았다.

치삼노인은 다시 말해 볼 여지가 없었다.

"여보, 그런 말은 이런 데서 하는 법이 아니요. 괜히 남 술맛 떨어지게!" 곁에 앉은 중 하나가 뒤를 따라 핀잔을 하는 바람에, 화가 더 치밀었으나 진수의 권하는 말에 치삼노인은 다행히(!) 무사하게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허 참, 복받겠다고 멀쩡한 자기 논 시주해 놓고 저런 설움을 받다니 온!'하는 젊은 사람들의 말도 들은 체 만 체, 뼈만 왈왈 떨리는 다리를 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진수네 집 대문밖에, 노 우거지상을 하고 앉아서 어서 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더러는 투덜거리며 돌아가고, 잡담이나 하고 고누

나 두던 녹은 친구들도 나중에는 역시 불평이 나왔다.
 "제에기, 간평을 나온 겐가, 술을 먹으러 나온 겐가?
 아무 작정을 모르겠군." 머리끝이 희끔희끔한 친구가 이
 렇게 불통하니깐, 곁에 있던 까만 딱지가, "글쎄 말야,
 ㉠ 이것들이 또 논을랑 둘러보지도 않고 앉아서만 소작
 료를 정할 것 아닌가?" "제에기, 우, 우리 논에는 또 안
 ---가겠군. 자---작년에도 앉아서 세만 자---자 잔뜩
 매더니....."

5. 윗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등장 인물의 내면 심리 묘사에 치중하고 있다.
- ②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주인공으로 다루고 있다.
- ③ 사건의 진행 순서와 시간 순서가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
- ④ 등장 인물이 사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등장 인물과 독자 사이가 가깝게 느껴지도록 표현하고 있다.

6. 윗글에 나타난 정황을 가장 잘 형상화한 것은?

- ① 이렇게 살아가는 / 우리의 어제 오늘이
 마침내 전설(傳說) 속에 묻혀버리는 / 해져 같은 그 날
 은 있을 수 없습니다.
- ② 팽파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 ③ 먹을 것 없는 자여! / 찬 아침 공기에 마비될 적에 /
 쓰리고 주린 배 움켜져 잡아라.
 그리고 봄빛이 따뜻한 / 무궁화 동산을 생각하여라
- ④ 어머님께서 조으실 때에는 왕만 따라 울었소이다.
 어머니의 지으시는 눈물이 젖 먹는 왕의 뺨에 떨어질
 때에면 왕도 따라 시름없이 울었소이다.
- ⑤ 이는 먼 / 해와 달의 속삭임 / 비밀한 울음 / 한 번
 만의 어느 날의
 아픈 피 흘림 / 먼 별에서 별에로의 / 길썬 위에 떨귀
 진 /다시는 못 돌이킬 / 엇갈림의 핏방울

잠바 흥정이 붙었다. 친구는 양복위에다 잠바를 입었
 다. 물건 주인은 값이 맞지 않는 모양으로 어서 벗으라
 고 잠바 앞섶을 한손으로 붙들고 당긴다. 조금도 닳아
 진 맛이 없는 것 같은 스물다섯이 채 됐을까 한 청년이
 다.

“안 팔다니, 팔백원이면 제 시센데, 시세를 다 쥐
 두 안 팔아? 이걸 누굴 히야까시(놀림)루 가지구 나
 왔어?”

친구는 눈을 매섭게 부릅뜨고 팔을 뿌리친다.

“글쎄 그르켄 못 팔아요, 이천원 다 쥐야 되요.”

청년의 손은 다시 잠바로 건너간다. 친구의 눈은
 좀더 매섭게 모로 비끼더니,

“받아요.”

지전 묶음을 청년의 호주머니 속에 억지로 넣어
 주고 돌아선다.

[A] 넣어준 돈을 청년은 다시 들어내 부르쥐고 뒤를
 쫓는다.

“여보!”

친구의 옷자락을 붙든다.

“누구야! 웨, 붙들어? 바쁜 사람을.....”

“인 쥐요.”

“주다니 멀 쥐?”

“잠바 말이에요.”

“당신 정신 있소? 물건을 팔구 돈까지 지갑에 넣
 구 다니다가 딴 생각을 허구선..... 이걸 누굴 바지
 저구리만 다니는 줄 알아? 맘대루 물건을 팔았다
 _물렀다.....”

몸부림을 쳐 청년의 붙든 손을 떨구고, 떨어진 손을
 와락 붙들어 이마빼기가 맞닿으리만치 정면으로 딱 당
 기어 세우고 눈을 흘기며 가슴을 밀어제친다.

“㉠ 이러단 좋지 못해 괜히!”

밀어제쳐진 대로 물러난 청년을 더 맞잡이를 할 용기
 를 잃는다. 멍하니 친구를 바라보고만 섰더니 어처구니
 없는 듯이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그대로 쥐고 있던
 돈을 세어보고 집어넣는다.

무서운 판이었다. 총소리 없는 전쟁 마당이다. 친구는
 이 마당의 이러한 용사이었던가? 만나기조차 무서워진
 다. 여기 모여 웅성이는 이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러한
 소리 없는 총들을 마음속에 깊이들 지니고 있는 것일
 까. 빗맛을까보아 곁이 바르다.

“아, 여 여보!”

어서 이 자리를 떠나고 싶어 자기를 찾는 듯이 살피
 는 친구를 꼭 질러 부른다.

“지금 왔소?”

“㉠ 나 좀 바빠 먼저 가알까봐. 기다리겠기에 들렀지.”

“바쁘긴 내 다 아는걸. 글썸 그래가지군 백만날 돌아다녀야 집 못 얻는달밖에. 난 아직 아침도 못 먹구…… 우리 점심 같이 허구 잠깐 집에 들러 옷 좀 갈아입고 나가세.”

“아니 정말 난……”

“글썸 이리 와요.”

손목을 잡아끌어 앞세운다. 강박히 부딪칠 수가 없다. 점심이람보다 술이었다. 실로 얼마 만에 소고기찜을 실컷 하고 확확 다는 얼굴을 느끼며 남산 밑을 돌아 후암동(厚岩洞)으로 따라간다. 어느 커다란 회사의 중역이 살던 숙사인 듯 반 양식의 빨간 기와집이다.

“㉡ 이 집두 그렇게 얻었거든.”

친구는 전령의 단추를 누른다.

꼭같은 알몸으로 보통이 한 개씩을 등에 걸머진 채 인천(仁川)에 내려서 헤어진 지 일년. 친구의 살림은 벌써 틀이 잡혔다. 가구의 준비까지도 완비가 된 듯 장롱이니 의걸이니 놓아야 할 건 제대로 다 들여놓였는 데 놀랐다.

“팔백원, 참 싸구나! 이건.”

들고 온 잠바를 다다미 위에 내던진다.

“거긴 하루 한때만 들러두 밥벌인 되거든. 일자린 없것다, 쌀값은 비싸것다, 그대로 댕그라니들 앉아서 배겨날 장사가 있다. 전재민들이 가지구 나오는 물건이 여간 많은 게 아니야. 능지에서 자라난 풀대 모양으루 희멸속한 얼굴이 물건을 제대루 내놓지두 못허구 옆에다 끼구선 비실비실 주변으루만 도는 걸 붙들기만 허면 그건 그저 얻는 폭이지. 저 잠바도 만주 건가봐. 가족이니 좀 좋아? 작자가 어리송해가지구 그래두 첫마디엔 안놓아주구 제법 쫓아오든데. 글썸 외투루부터 저구리, 바지 차례루 다들 팔아자시군 쪽 발가벗고들 눈이 멀뚱뚱하야 누어서 천장에 파리똥만 세구 있는 사람두 있대나? 하하. 자네도 이런 데 눈뜨지 않으믄 파리똥 세계 돼네, 괜히.”

“㉢ 파리똥두 집이 있어야 헤지. 난 별만 헤네.”

농으로 받기는 하였으나 친구의 상식과는 대접이가 되지 않느다. 기만 막히는 소리뿐이다.

“난 가겠네.”

“아, 이사람아, 같이 나가. 내 정말 한놈 내쫓구 집들게 해준달밖에.”

“우리 단 두 식구 살 집 그리 커선 멀 하나. 난 방이나 한칸 얻을까봐.”

“방은 그래 얻을 듯싶어? 보증금이 만원두 넘는다데.”

“밭두 못 얻으면 이북으루 가지.”

“㉣ 저런! 이북선 누가 그저 집 주나? 다 저 혈 나름이라누. 여기서 못살면 거기 가두 못살아.”

중략 부분의 줄거리

친구와 헤어진 ‘그’는 살 집을 구하지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고향인 북으로 가기 위해 서울역으로 간다. 그곳에서 ‘그’와 어머니는 고향 사람을 만난다.

“이북으루요? 아이구 갈럼 마르우. 잘사는 사람은 잘살아두 못사는 사람은 거기 가두 못살아요. 돈 있는 사람 덴답과 집들은 다 뺏음 멀 허갔소. 없던 사람들이 당사들을 해서 그만침은 또 다 잡아냈는데…… 우리두 그른 당사 했음 돈 잡았디요. 우리 옥순이 아바진 그른 당사엔 눈두 안 뜨구 픽픽 웃기만 허디요. 그르니 살긴 어려워만 가구, 좀 허문 그르케 힘든 국경(국경)을 넘어오갔소.”

[B] “아이구 우이 아와 신통이두 같구나. 만주서 같이 나온 사람덜은 야미(암거래) 당사들을 해서 돈 몬 사람덜이 많은 우리 아가 그른 건 피익픽 웃디 밥을 굶으먼서두. 거기두 고름 그르쿠나 거저. 살기가 같을 바에야 멀허레 그 끔직한 국경을 넘어가간.”

“그러믄요. 아이, 여기두 고름 살기가 그르케 말썬우다레. 잉이? 머 광다부(廣木) 한자에 삼십원 헨다 사십원 헨다 허더니.”

“우리 갖에 와선 그르케두 했단다. 어즈께레 옛날인데 멀 그르네. 거기 집은 어드르니 그르네. 얻킨 쉬우니?”

“쉽다니요! 발라요. 거저 집이라구 우멍헌 건 내만 노문 훌떡훌떡 허디요. 그르기 어디 빈 간이 있게 그르우? 만주서 나와 집 찾는 사람두 있디요? 제집 찢게나서 어디 빈 간이나 있을까 허구 돌아가는 사람두 있디요? 머 촌이나 골이나 딱 같습두다. 난이예요, 난.”

“여기두 그르탄다. 우린 집을 못 얻구 한디에서 살았단다. 밥이라군 밀가루떡만 먹구.”

“여기도 고름 그르케 집이 없어요! 것두 갈수다레 고름?”

“글썸 네 말을 들으니케니 집 없는 것까지 신통두 허

게 같구나 참.”

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 전개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회상 형식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다.
- ③ 섬세하고 치밀한 심리 묘사를 통해 비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④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정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이야기 바깥의 서술자가 중심 인물의 시각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8. 위 글을 통해 드러난 ‘자기’와 ‘친구’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자기 | 친구 |
|------|--------------------------------|----------------------|
| ① 공통 | 가진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객지 생활을 시작한 인물 | |
| ② 점 | 원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환경에 던져진 인물 | |
| ③ |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기본 양식을 지키려는 인물 | 생존을 위해서 양심을 버린 인물 |
| ④ 차이 |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 | 현실에 능동적으로 적응한 인물 |
| ⑤ 점 | 생각한 것을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인물 | 생각한 것을 바로 행동에 옮기는 인물 |

(가) 빗물 떨어지는 자리에는 양동이 놓여 있었다. 출렁출렁 쪼르륵 출렁, ㉠ 빗물은 이와 같은 연속적인 음향을 남기며 양동이 안에 가 떨어지는 것이었다. 무덤속 같은 이 방 안의 어둠을 조금이라도 구해 주는 것은 그래도 빗물 소리뿐이었다. 그러나 그 ㉡ 빗물 소리마저, 양동이에 차츰 물이 늘어 갈수록 우울한 음향으로 변해 가는 것이었다.

동옥(東旭)은 별로 원구(元求)와 동옥(東玉)을 인사시키거나 소개하려 하지 않았다. 동옥은 젖은 옷을 벗어서 걸고, 러닝과 팬티 바람으로 식사 준비를 할 터이니 잠깐만 앉아 있으라고 하고 부엌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부엌이래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옆방이었다. 다다미는 견어서 벽 한구석에 기대어 놓아, 판장뿐인 ㉢ 실내에는 여기저기 빗물이 오줌발처럼 쏟아졌다. 거기에는 취사도구가 너저분하니 널려 있는 것이었다. 연기가 들어간다고 사잇문을 닫아 버리고 나서, 동옥은 풍로에 불을 피우느라고 부채질을 하며 야단이었다. 열 시가 조금 지난 회중시계를 사잇문 틈으로 꺼내 보이며, 도대체 조반이나 점심이냐는 원구의 질문에, 동

옥은 닝글닝글하며 자기들에게는 삼시의 구별이 없다고 했다. 언젠든 배고프면 밥을 끓여 먹고, 밥 생각이 없는 날은 종일이라도 굶고 지낸다는 것이었다. 동옥이 부엌에서 혼자 바빠 돌아가는 동안 동옥은 역시 한 자리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동옥은 가끔 하품을 하며 외국에서 온 낯은 화보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러한 동옥이와 마주 앉아 자기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해야 하며, 또한 어떠한 포즈를 지속해야 하는가? 원구는 이런 무의미한 대좌(對座)를 감당할 수 없어 차라리 부엌에 나가 풍로에 부채질이나마 거들어 줄까도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 그만한 행동도 이 상태로는 일종의 비약이라 적지 아니한 용기가 필요했다. 그러는 동안 원구는 불안간 엉덩이가 척척해 들어옴을 의식했다. 양동이의 빗물이 넘어서 옆에 앉아 있는 원구의 자리로 흘러내린 것이었다. 원구는 젖은 양복바지의 엉덩이를 만지며 일어섰다. 그제야 동옥도 양동이의 물이 넘는 줄을 안 모양이다. 그러나 동옥은 직접 일어나서 제 손으로 치우려고 하지도 않았다. 앉은 채 부엌 쪽을 향해, 오빠 물 넘어, 했을 뿐이었다. 동옥은 사잇문을 반쯤 열고 들여다보며 이년아, 네가 좀 치우지 못해? 하고 목에 핏대를 세웠다. 그러자 자기가 나서기에 절호한 기회라고 생각한 원구는, 내가 내다 버리지 하고 한 손으로 양동이를 들어 올렸다. 그러나 한 걸음도 미처 발을 옮겨 놓을 사이도 없이 양동이는 철그렁 하는 소리와 함께 한 옆이 떨어지며 물이 좌르르 쏟아졌다. 손잡이의 한쪽 끝 갈고리가 고리 구멍에서 벗겨진 것이었다. 순식간에 방바닥은 물바다가 되고 말았다. 여태껏 꼼짝 않고 앉아 있던 동옥도 그제만은 냉큼 일어나 한 걸음 비켜서는 것이었다. 그 순간의 동옥의 동작이 예사롭지가 않았다. 원구에게 또 하나 우울의 씨를 뿌려 주는 것이었다. 원피스 밑으로 드러난 ㉤ 동옥의 왼쪽 다리가 어린애의 손목같이 가늘고 짧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다리를 옮겨 디디는 순간, 동옥의 전신은 한쪽으로 쓰러질 듯이 기울어지는 것이었다. 동옥은 다시 한번 그 가늘고 짧은 다리를 옮겨 놓는 일 없이, 찢지 않은 구석 자리에 재빨리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그러고는 ㉥ 희다 못해 파랗게 질린 얼굴에 독이 오른 눈초리로 원구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 것이었다. 동옥의 시선을 피하여 탁류의 대하 가운데 떠 있는 것 같은 공포에 몸을 떨며, 원구는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 허우적거리듯, ㉦ 두 발로 물 고인 방바닥을 절벽거려 보는 것이었다.

(중략)

(나) 그 뒤로는 원구도 생활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 달 가까이 장마로 놀고 보니, 자연 시원치 않은

장사 밀천을 그럭저럭 축내게 된 것이다. 원구가 얻어 있는 방도 지루한 비에 습기로 눅눅해졌다. 벗어 놓은 옷가지며 이부자리에까지도 곰팡이가 끼었다. 그의 마음속에까지 곰팡이가 스는 것 같았다. 이런 날 이런 음산한 방에 처박혀 있자니, 동옥과 동옥의 일이 자연 무겁고 우울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점심때가 거의 되어서 원구는 퍼붓는 비를 무릅쓰고 집을 나섰다. 오늘은 동옥이와 마주 앉아 곰팡이 손 속을 씻어 내리며, 동옥이도 위로해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원구는 술과 통조림을 사 들고 찾아갔다. ㉔ 낮은 목조 건물은 전과 마찬가지로 금방 쓰러질 듯이 빗속에서 있었다. 유리 없는 창문에는 거적도 그대로 드리워 있었다. 그러나, 동옥이, 하고 원구가 불렀을 때, 곰처럼 마루로 기어 나오는 사나이는 동옥이가 아니었다. 이 집에서 살던 젊은 남녀는 어디 갔느냐는 원구의 물음에, 우락부락하게는 생겼으되 멧힌 데가 없이 어딘가 허술해 보이는 사십 전후의 그 사나이는, 아하 당신이 정(丁) 뭐라는 사람이라고 하고, 대답 대신 혼자 머리를 끄덕끄덕하는 것이었다. 원구가 재차 묻는 말에 사나이는 자기가 이 집 주인이노라 하고 나서, 동옥은 외출한 채 소식 없이 돌아오지 않게 되었고, 그 뒤 동옥 역시 어디로 가 버렸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동옥이가 안 돌아오는 지는 열흘이나 되었고, 동옥은 바로 이삼일 전에 나갔다는 것이다. 원구는 더 무슨 말이 없이 서 있었다. 한 손에 보자기 꾸러미를 들고 한 손으로는 우산을 받고 선 채, 원구는 사나이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었다. 원구는 그대로 발길을 돌려 몇 걸음 걸어 나가다가 되돌아와 보자기에 쓴 물건을 끌러 주인 사나이에게 주었다. 이거 원, 이거 원, 하며 주인 사나이는 대뜸 입이 헤 벌어졌다. 그리고는 자기 여편네와 아이들이 장사 나갔기 때문에 점심 한 그릇 대접할 수는 없으나, 좀 올라와 담배라도 피우고 가라고 권하는 것이었다. 무슨 재미로 쉬어 가겠느냐고 하며 원구가 돌아서려니까, 주인은, 잠깐만 하고 불러 세우고 나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노라고 하며 사실은 동옥이가 정 누구라고 하는 분이 찾아오면 전해 달라고 편지를 맡기고 갔는데, 그만 간수를 잘못해서 아이들이 찢어 없었던 것이다. 그래도 아무 말을 않고 멍하니 서 있는 원구를, 주인 사나이는 무안한 눈길로 바라보며 동옥은 아마 심중팔구 군대에 끌려 나갔을 거라고 하고, 동옥은 아이들처럼 어머니를 부르며 가끔 밤중에 울기에, 뭐라고 좀 나무랐더니 그다음 날 저녁에 어디론가 나가 버렸다는 것이다. 죽지나 않았을까, 자살을 하든, 굶어 죽든……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돌아서는 원구의 등에다 대고, 중요한 옷가지량은 꾸러 가지고 간 모양이니 자살할 의사는 없었음이 분명하고, 한편 병신이긴 하지만 얼굴이 고만큼 뻔뻔하고서야, 어디 가 몸을 판들 굶어

죽기야 하겠느냐고 주인 사나이는 지껄이는 것이었다. 얼굴이 고만큼 뻔뻔하고서야 어디 가 몸을 판들 굶어 죽기야 하겠느냐는 말에, 이상하게 원구는 정신이 펼쳐들어, 이놈 네가 동옥을 팔아먹었구나, 하고 대들 듯한 격분을 마음속 한구석에 의식하면서도, 천 근의 무게로 내리누르는 듯한 육체의 중량을 감당할 수 없어 그는 말없이 발길을 돌리켰다. ㉕ 이놈, 네가 동옥을 팔아먹었구나, 하는 흥분한 소리가 까마득히 먼 곳에서 자기를 향하고 날아오는 것 같은 착각에 오한을 느끼며, 원구는 호박 덩굴 우거진 발두둑 길을 밟고 난 사람 모양 허전거리는 다리로 걸어 나가는 것이었다.

9. 다음 <보기>는 이 작품에 대한 비평의 일부이다. <보기>의 밑줄 친 '격변기'를 위의 작품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게다가 그 인물들은 현실 상황이 주는 압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인물이어서, 그들의 불행한 생활 조건을 더욱 절망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것을 잘 드러내 보여 주는 어휘가 '운명'이다. 이와 같은 운명론적, 부정적 인간관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의 소설들은 격변기의 사회에서 뿌리를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빨리 철저히 허물어지는가를 예리하게 묘사한다. 그의 숙명적 인간관은 바로 격변기를 사는 인간의 부정적 생활관의 한 정점이다.

- ① 식민지 치하의 압제
- ② 한국 전쟁 직후의 혼란기
- ③ 혁명적 정치 상황
- ④ 경제적 혼란기
- ⑤ 해방 후의 혼란기

10. ㉔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등장 인물의 경박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등장 인물 사이의 사적 유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사건 전개가 급속히 진행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 ④ 계절의 변화와 아울러 사건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⑤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허 노인이 한 번 발을 헛디뎠던 다음 날이었지요. 마침 그날도 나는 거기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 허 노인이 아들의 줄타기를 보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나는 줄 위에 있는 운이 아니라 무섭도록 줄을 쏘아보고 있는 노인의 눈과 땀이 송송 솟고 있는 이마를 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노인이 갑자기 ‘이놈아!’ 하고 벽력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줄 밑으로 내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야 나는 줄 위를 쳐다보았지요. 그런데 운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채 그냥 줄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 이놈…… 너는 이 애비의 말도 듣지 않느냐?

운이 줄을 내려왔을 때 노인이 호령했으나, 그는 역시 어리둥절해 있기만 했어요. 내가 놀란 것은 ㉡ 그때 허 노인이 빙그레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그길로 곧 함께 주막 술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사내의 이야기는 다시 계속되었다.

그날 주막에서 허 노인은 운에게 술잔을 따라 주고, 그날 밤으로 운을 줄로 오르라고 했다.

—줄 끝이 멀리 보여서는 더욱 안 되지만, 가깝고 넓어 보여서도 안 되는 법이다. 그 줄이라는 것이 눈에서 아주 사라져 버리고, 줄에만 올라서면 거기만의 자유로운 세상이 있어야 하는 게야. 제일 위험한 것은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이다. 줄에서는 눈이 없어야 하고 귀가 열리지 않아야 하고 생각이 땅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는 소리다.

노인은 조용조용 ㉢ 당부했다. 그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노인의 일생을 몇 개로 잘라서 압축해 놓은 듯한 무게와 힘과, 그리고 알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 자기의 전 생애를 운에게 떠넘겨 주려는 듯한 안간힘이

거기 있는 것 같았다. 운은 비로소 허 노인이 끝끝내 줄타기 자세를 바꾸지 못하는 내력을 알 것 같았다.

—㉤ 아버지, 이젠 줄을 그만두시고 좀 쉬십시오.

운이 말했으나 노인은 조용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줄에서 내 발바닥의 기력이 다했다고 다른 곳을 밟고 살겠느냐? 같이 타자.

그날 밤, 줄에는 두 사람이 함께 올라섰다. 운이 앞서고 허 노인이 뒤를 따랐다. 운이 줄을 다 건넜을 때는 객석이 뒤송송하니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뒤를 따르던 허 노인이 줄에서 떨어져 이미 운명을 하고 만 뒤였다.

(중략)

“……그러니까 그 뒤로 운이 허 노인의 당부대로 줄을 탔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허나 확실한 것은 그 역시 전에 허 노인이 당하던 단장의 꾸지람을 고스란히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꾸지람을 듣고 있을 때까지도 영 정신이 나간 사람 모양 멍청히 서

있기만 했어요. 나중에는 단장도 그런 운을 늘 나무랄 수가 없게 되었어요. 활동사진이라는 것이 갑자기 성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에 손님을 다 빼앗기고 나니 ㉥ 우리는 거렁뱅이가 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장이 그래도 그중에 나왔습니다. 생각 생각 하다가 짜낸 것이 결국 구경꾼의 흥을 더 돋우어 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래 그 방편으로 제일 적합한 것이 운이었습니다. 줄을 그전 때보다 두 배, 세 배로 높이 매달았습니다. 허 노인은 어느 광대보다 높이 줄을 탔기 때문에 가설극장의 천장 포장까지 걷어 내야 했지만, 이번에는 거기 비교가 안 될 정도였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C읍까지 왔었습니다. 그땐 가을이었지요.”

C읍에서 — 어느 날 밤, 운이 줄에서 내려와 보니 그에게 꽃다발이 하나 와 있었다. 꽃다발이라야 그즈음 산이나 들에 지천으로 피어난 들국화 몇 송이를 꺾어다 종이 리본으로 묶은 것이지만, 워낙 처음 있는 일이라 부처님 같은 운도 약간 호기심이 들었다. 꽃다발을 가져온 것은 소녀기를 갓 벗은 여자라고 했다.

—잘해 봐라 이 녀석. 총각 귀신은 제사도 없단다.

트럼펫의 사내가 웃으면서 그 꽃다발을 운에게 건네주었다. 여자는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같은 일을 하고 갔지만, 언제나 운이 줄을 올라간 뒤에 왔다가 줄에서 내려오기 전에 가 버리기 때문에 정작엔 얼굴조차 볼 수가 없었다. 매일 밤 꽃다발을 맡았다 운에게 전해 주던 트럼펫이 보다 못해 하룻밤엔 일을 꾸몄다.

—공원으로 가 봐라. 거기 여자가 기다리고 있을 게야.

운이 줄에서 내려오자 트럼펫이 운에게 일러 주었다.

“지금 이야기 중의 트럼펫이라는 운의 친구가 바로 노인장이시겠습니까?”

나는 갑자기 이 사내 자신에 대한 한 가지 의문이 떠올라 그렇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나팔을 불고 나면 조금씩 피를 뺄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입에서 나팔을 뿜 수는 없었습니다. 나팔을 불지 못하면 진짜로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노인께서 여길 떠나지 못하고 주저앉은 것도 폐 때문인 것 같은데 그때 노인장께서는 독신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독신이었는데, 갑자기 각혈이 심해져서…….”

사내는 말끝을 흐렸다.

정말로 그랬을까? 나는 여전히 의문이 사라지질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누군가를 따라 떠났어야 할 이유도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폐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가 없지도 않은가. 그렇다면— 이 사내는 혹시 운을 찾아오는 여자에게 사랑을 느낀 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러나 사내는 내가 입을 열기 전에 이야기를 서둘러 이어갔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는 운이 여자를 만나게 해 주었는데, 여자를 만나고 와서도 운은 별로 달라진 게 없더구먼요. 그런 일이 한 주일쯤 계속되었지요. 그런데 ㉔ 갑자기 운이 줄 위에서 재주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단장이나 구경꾼들은 무척들 좋아했지요. 하지만 나는 옛날 허 노인의 실수를 기억하고 있었던 만큼 그게 불안했습니다. 몇 번씩 그런 재주 같은 동작을 하고 줄을 내려온 운은 유독히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고, 단장의 칭찬에도 넋 나간 눈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나의 생각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어요. 운이 자꾸 귀와 눈을 때리면서 무언가 혼잣소리 중얼거리곤 하는 거예요. 자신을 몹시 못 견뎌 하는 얼굴이었지요.

[뒷부분의 줄거리] 어느 날, 공연이 끝난 후에 운은 공원에서 여자를 다시 만난다. 운은 여자에게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단장에게 가서 다시 한번 줄을 타겠다고 한다. 다시 줄을 탄 운은 떨어져 죽는다

1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사내’와 ‘운’은 나이가 비슷하였다.
- ② ‘사내’는 ‘운’에게 한 여자를 만나게 해 주었다.
- ③ ‘허 노인’은 ‘운’과 함께 술을 마신 날 밤 같이 줄에 올랐다.
- ④ ‘사내’는 ‘여자’가 ‘운’에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 ⑤ ‘운’은 공원에서 ‘여자’를 만나고 온 다음에 공연에 변화를 주었다.

12. ㉑~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 ‘운’의 줄타기 실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는 긴장감 때문이다.
- ② ㉒ : ‘운’이 자신의 충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허 노인’의 심리가 나타난다.
- ③ ㉓ : ‘운’이 줄타기에만 몰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허 노인’의 믿음이 반영되어 있다.
- ④ ㉔ : 줄을 타다 발을 헛디딘 ‘허 노인’을 염려하는 ‘운’의 심리가 드러난다.
- ⑤ ㉔ : 시대의 변화를 따른 인물들의 삶이 나타난다.

정답 및 해설

1) <답> ③

이 글은 '나'가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조선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형식이다.

2) <답> ④

'만세전'은 여로형 소설이다. 배와 기차를 타고 움직이는 동안, '나'는 조선인들의 삶과 그들의 사고방식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게 된다. 제시된 장면에서도 '나'는 갖 장수를 통해 조선 민족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게 된다.

3) <답> ①

이 글은 화자인 '나'가 주인공인 '그'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다(ㄱ). 또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민중들의 참혹한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그린 소설이다(ㄴ).

ㄷ. 억압적인 현실이 제시되어 있지만, 거기에 저항하는 전형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ㄹ. 내적 독백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4) <답> ④

이 글에서는 '그'의 경험이 주로 제시되고 있을 뿐,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이 삽화 형식으로 나열되고 있지 않다.

- ① '그'의 과거 이야기가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② '씩어 넘어진 서까래, 뚝뚝 구르는 주추'에서 폐허로 변한 일제 강점하의 농촌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 ③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 동양 척식 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에서 '동양 척식 회사'는 일제가 우리나라의 농지를 수탈하기 위해 세운 회사이다. 일제 강점기가 된 후 '그'의 가족은 결국 농사 지을 땅을 잃고 이 회사의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 ⑤ 이 글은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상황과 '그'라는 인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그리고 있다. 고향과 부모를 잃고 이곳저곳을 고달프게 떠돌아다니는 '그'의 삶의 이력이 과거의 체험담으로 간접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5) <답> ②

소설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이 소설은 사하촌에 살고 있는 가난한 소작인들을 주인공으로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따라서 어떤 개인이 주인공이라기 보다, 사하촌 사람들 전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서술

자가 사하촌 사람들의 모습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①처럼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 묘사에 치중했다고 볼 수 없다. 또 이야기를 전개하는 순서가 사건의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③도 옳지 않다. ④는 서술자가 곧 작가이므로 옳지 않고 ⑤는 등장인물이 서술자를 거쳐 독자에 전달되므로 이 역시 옳지 않다.

6) <답> ②

위 글에 나타난 정황이 가장 잘 형상화 된 것을 찾는 문제이다. 위 글의 정황은 한마디로 고통 받는 농민의 삶이 드러나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그러한 상황을 형상화한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된다.

7) <답> ⑤

이 글은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자가 이야기 바깥에 있지만, 중심인물인 '자기'를 통해 마치 1인칭 시점인 것처럼 서술되고 있다. '자기'의 내면을 중심으로 하여 '친구'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로 볼 때 중심인물의 시각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특별한 심리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② 1년 전의 일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나오지만 회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전체적으로 섬세하고 치밀한 심리 묘사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비장감도 관련이 없다. ④ 작중 상황과 관련한 배경 묘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8) <답> ⑤

⑤의 경우 '자기'가 삶의 어려움에 시달리기는 하지만 생각한 것을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인물로 볼 수 있는 단서가 없다. 오히려 앞부분에서 '친구'의 제의를 자신의 생각대로 거절하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① 두 사람은 인천에서 빈손인 상태에서 헤어져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다. ② 두 사람은 원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새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처지이다. ③ '자기'는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기본적인 양심을 지키면서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친구는 살기 위해서라면 시장에서 상대방을 위협하여 옷을 빼앗다시피 사는 행동을 일삼는 등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인물이다. ④ 1년 사이에 '친구'는 현실 적응력이 뛰어나 생활의 기반을 닦은 반면 '자기'는 살던 집도 빼앗긴 상태이다.

9) <답> ②

본문에 나오는 '일사 후퇴 당시'라는 말에 우선 유의해

야 한다. 이 작품은 전쟁 직후의 혼란기에 허무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10) <답> ⑤

작품 전반에 걸쳐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소재가 바로 '비'이다. 경쾌하게 쏟아져 내리는 비가 아니라 추적 추적 사람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무겁게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11) <답> ④

사내가 '나'에게 운이 만나던 여자의 이야기를 해 주는 데서 알 수 있다. 사내는 운이 줄에서 떨어져 죽은 후 여자에게서 운과 여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해 들었으나 그 이전에 여자가 '운'에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12) <답> ②

'허 노인'은 '운'이 줄을 탈 때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과 같이 말하고 있으며, '운'이 줄타기에 몰입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흐뭇해하고 있다. 따라서 ㉡을 '운'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허 노인'의 심리가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허 노인'은 줄을 탈 때 혼신의 힘을 기울여 오로지 줄타기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이러한 생각이 '운'에게 계승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허 노인'은 '운'이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줄을 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긴장하며 '운'의 줄타기를 바라보고 있다.

③ '허 노인'은 '운'이 자신의 말을 듣지 못한 것을, 줄타기에 몰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운'역시 자신과 같은 경지에 올랐다고 믿게 된다. ④ '운'은 '허 노인'이 자신의 전 생애를 넘겨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허 노인'의 모습을 통해 그가 혼신을 다해 줄을 타왔음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이미 늙어버린 '허 노인'이 계속 줄을 타게 되면 전날처럼 발을 헛디딜 수 있기에 '허 노인'을 걱정하고 있다.